

광주일보 유튜브 1000만 뷰 돌파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 ... 다양한 콘텐츠로 뉴미디어 시대 선도 '야구도시 광주' KIA 선수들 영상 인기... 남도의 멋과 맛 담아 전두환 손자 전우원 인터뷰 전국서 화제 폭발 조회수 85만 기록



호남대표 언론인 광주일보가 뉴미디어 시대를 견인하고 있다.

광주일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19일 오전 기준 호남지역 신문 최초로 1000만 조회 수를 돌파했다.

2017년 1월 11일 공식 채널을 개설하고 뉴미디어 시대를 향한 첫 걸음을 떤 광주일보는 활자와 영상을 결합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호남지역 신문사 최초로 유튜브 100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광주일보 유튜브 채널은 정치·사회적 화제가 되는 현상과 인물, 프로야구 KIA타이거즈와 프로축구 광주FC를 중심으로 한 지역 스포츠 현장, 그리고 호남의 멋과 맛 등을 고르게 다룬 덕분에 독자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유튜브 개설 6년여 동안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상은 지난 3월 30일 내보낸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의 단독 인터뷰다.

전우원씨는 당시 자신의 할아버지 대신 5·18학살에 대해 사죄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 전 씨의 광주 방문 소식에 점심도 거르며 현장을 지킨 취재기자의 노력으로 이뤄진 전우원 씨와의 만남은 '빨래방'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진행된 인터뷰 등으로 화제를 모으며 85만이라는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했

다. 광주일보 유튜브를 대표하는 콘텐츠는 '야구 도시' 광주에 걸맞게 지역연고 구단 KIA타이거즈를 소재로 한 야구영상이다. KIA를 중심으로 한 프로야구 유튜브 영상을 매주 3~5개씩 업로드하고 있는데, 이 영상 1개당 평균 1만~5만 명 정도가 시청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중에서도 따뜻한 야구 스토리를 담은 감성 영상은 광주일보 유튜브 팬들의 깊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동성고에 찾아온 천사 국가대표'라는 제목의 영상은 영호남이 하나로 어울리는 장이 되기도 했다. WBC 대표로 첫 태극마크를 달았던 광주 동성고 출신의 롯데 투수 김원중이 모교 후배들에게 바람막이까지 선물하면서 영상 주인공이 됐고, 15만 명이 넘는 야구팬이 영상을 찾았다. 롯데팬들과 KIA팬들까지 어우러진 훈훈한 댓글도 이어졌다.

광주일보 유튜브는 승리의 여운이 가득한 KIA 덕아웃 모습부터 수훈 선수 인터뷰까지 결연여 경기가 끝난 뒤 바로 팬들이 영상을 즐길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업로드해 고정 팬을 확



보고 있다.

여기에 관중석이 폐쇄되기도 했던 코로나19 시국에도 야구장과 축구장을 지키면서, 그라운드를 그리워하는 팬들의 마음을 영상으로 달래왔다.

이이리와 엄지성, KIA와 광주FC는 물론 리그를 대표하는 '신인왕' 출신의 동갑내기 두 선수를 한 자리에 초대 한 광주일보는 축구·야구팬들을

한데 아우르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광주일보 유튜브는 광주·전남은 물론 국경까지 넘나들고 있다. KIA의 스프링캠프가 꾸려졌던 일본 오키나와와 미국 플로리다, 애리조나는 물론 광주FC의 담금질 무대가 됐던 태국까지 찾아가 팬들이 쉽게 볼 수 없는 훈련 모습과 시즌을 앞둔 선수들의 솔직 담백한 인터뷰 등으로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캠프 취재현장에서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와 소통을 하며 '쌍방향 미디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을 딛고 3년 만에 문을 연 캄보디아 광주 진료소에도 광주일보가 출동해 생생한 현장을 담았다. 광주일보만의 감성을 담은 콘텐츠도 화제가 됐다. 5·18 전야

제부터 추모식, 5·18 주먹밥 만들기 행사 현장, 다시 돌아온 택시기사 등 현 세대가 5·18을 기억하는 법을 영상에 담았다.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화정 아이파크 영상에도 시선이 쏠렸다. 39층 외벽 제거 작업과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담은 영상은 각각 27만, 13만 조회 수를 기록했다.

최근 광주일보에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유튜브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혈기왕성한 신입 기자들은 직접 배에 올라타 전남 어민의 '오염수방류 반대' 완도 해상시위를 찍기도 하고, 차오르는 물에도 침수피해 대비 시설을 취재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십자가 철거 현장도 광주일보 유튜브 카메라가 담았다.

문화·예술 예방의 도시답게 쓰레기를 활용한 약기연주부터 3D 프린터로 만든 피규어, 전통주양조장, 친환경 지구농장터 등 광주의 '맛'과 '멋'까지 맛깔난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다.

거창한 장비로 찍은 화려한 영상은 아니지만 취재기자들이 직접 발로 뛰며 담아낸 알찬 내용과 생동감 있는 영상은 광주일보 유튜브만의 매력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28일~10월 1일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통행

료 면제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이 기간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오는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 처리된다.

/연합뉴스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 논의 회의 26일 서울서 개최

한중일이 3국 정상회의의 재개를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의(SOM)를 오는 26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회의에서는 앞으로 3국 간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 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3국의 차관보급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외무심의관, 중국에서는 농농 외교부 부장조리가 참여한다.

3국 고위급회의의 전날인 25일에는 3국의 부국장급 회의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재개를 3국이 본격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3국 정상회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3국 정상회의는 연내 개최를 목표로 협의의 중이고 정상회의의 일자를 조율하기에 앞서 외교장관 간 회의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물가에 더 부실해진 취약계층 보상 ▶6면

전국체전 때 둘러보자 눈부신 남도의 가을 ▶11면



KIA 박찬호, 다시 방망이 잡았다 ▶18면

사랑과 감사의 69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3]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Mercedes-Benz Certified

가장 손쉽게 만나는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변함없는 클래스의 인증 중고차를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스토어에서 주문해 보세요. 단 몇 번의 터치만으로 편리하게, 빠르게.

- 온라인 결제 시스템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국내 수입차 최다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Trade-in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천동)